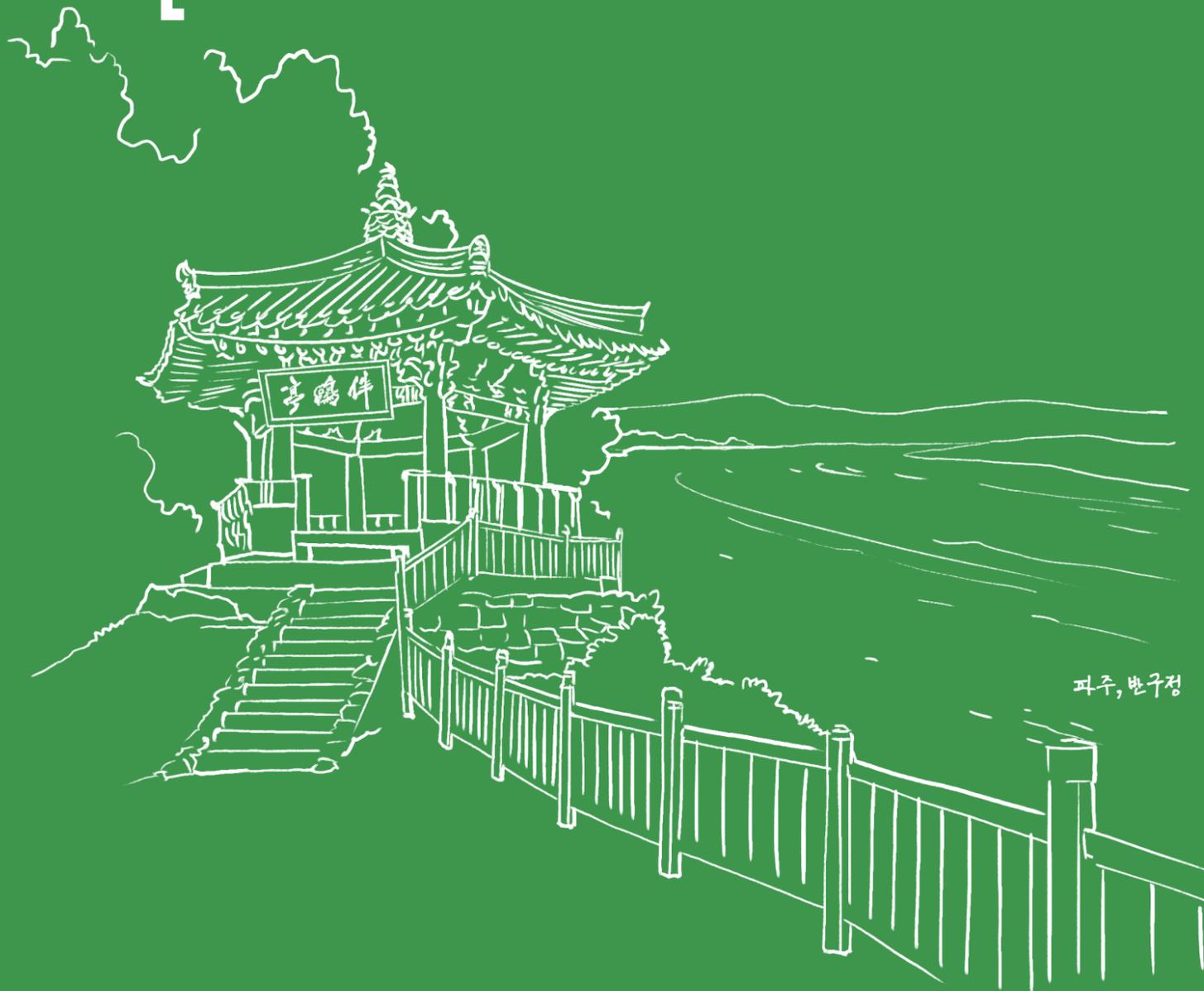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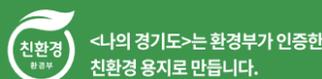


11월



피주, 반구정



<나의 경기도>는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용지로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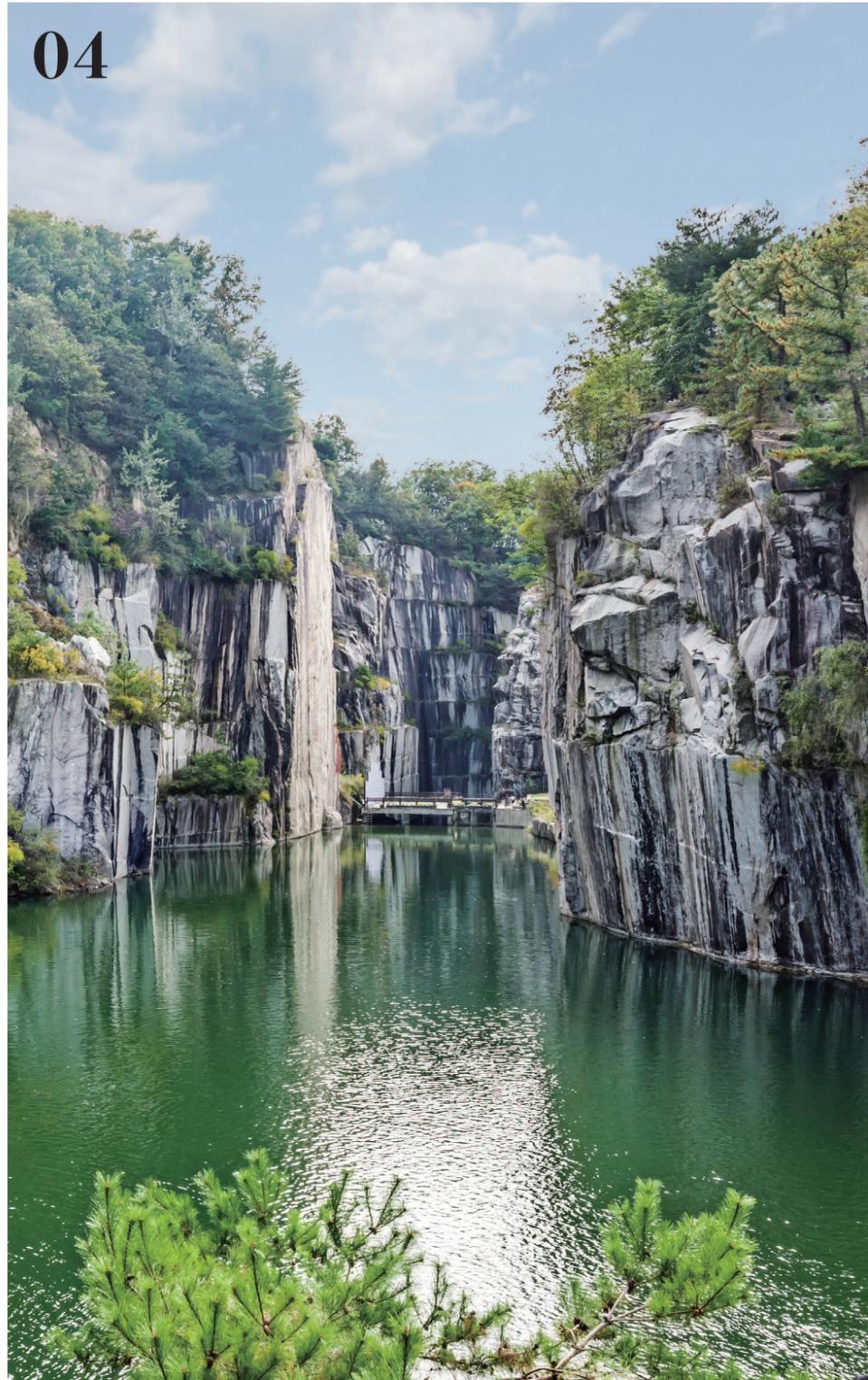
경기도민 힘내세요! 경기지역화폐가 있잖아요
경기도에 이런 곳이? 폐공장에서 문화 예술 공간으로!
허영호의 경기둘레길 부천 56코스 탐방
'대한독일인' 린데만의 신나는 한국살이

발간등록번호
71-6410000-000841-06



CONTENTS

VOL.161
202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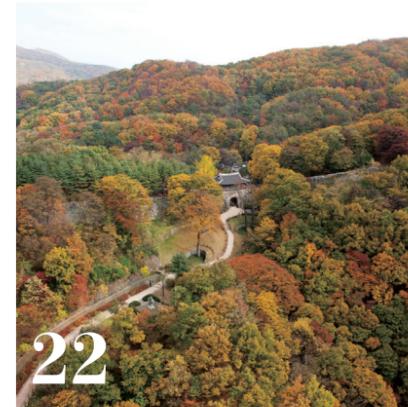


발행처 경기도
발행인 경기도지사 김동연
편집인 홍보기획관 이종돈
제작부서 홍보미디어담당관
발행일 2022년 11월 1일

〈나의 경기도〉는 경기도가 무료로
발간하는 도정 소식지입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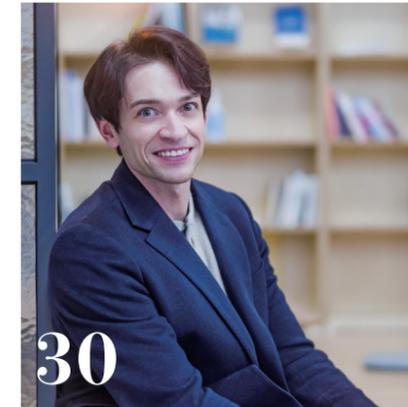


문자 음성 변환 코드, 보이스아이



내가 행복한 경기

- 4 아름다운 경기도
버려진 것들의
아름다운 변신
- 14 경기 포커스 1
경기도민 힘내세요!
경기지역화폐가 있잖아요
- 20 경기 포커스 2
경기도의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합니다
- 22 경기 돋보기
단풍 깊어가는
가을을 걷다
- 26 경기 문화 예술인
찬란하게, 현란하게!
거리의 예술가 빈을



우리가 성장하는 경기

- 30 명사 인터뷰
'대한독일인' 린데만의
신나는 한국살이
- 34 상생 경기
푸른 지구와 일자리 만든다
라라워시 용인점
- 36 스마트 시티 in 경기
시민이 만드는
스마트 시티, 고양
- 38 쉼이 있는 시(詩)간
공릉천 갈대



함께 누리는 경기

- 40 허영호의 경기둘레길 탐방
물길 따라 뱃길 따라 걷는 길
경기둘레길 부천 56코스
- 44 박찬일의 경기 백년 식당
35년 전통의 피자집
양주 피자성호인방
- 48 펫과 함께
반려견 외에도 세상에 반려동물은 많다!
나에게 맞는 반려동물 찾기
- 50 꿈꾸는 사진관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 52 복지누리
상속세·법률 고민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 54 경기 문화유산답사기
의리와 총절의 상징,
포은 정몽주 유적지
- 56 이달의 노력
놓치면 아쉬운 11월의 문화생활
- 58 의회 인사이드
- 62 경기도는 지금
- 64 일JOB 꿈JOB
- 66 독자 이벤트



버려진 것들의 아름다운 변신

세상에 그냥 버려지는 것은 없다.
쓸모없는 폐허도 숨을 불어넣으면
얼마든지 멋지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복합 문화 공간·미술관·박물관 등으로 변신한
폐공장, 쓰레기 소각장, 채석장의 화려한 부활.
공간의 변신은 무한하다.

담배 공장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11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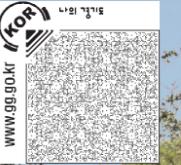
정조대왕이 화성을 축조하면서 백성을 위해
조성한 농경 시설인 대유평(大有坪)은 훗날
활발한 산업화와 함께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1960년대 후반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를
생산하는 연초제조창을 만들어 시나브로, 88,
라일락, 한라산, THIS 등의 담배를 이곳에서
제조한 것. 이후 2003년 가동을 중지하면서
20년 가까이 방치된 공장의 건물을 일부
보존해 복합 문화 공간 '111CM'을 만들었다.
111CM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와
커뮤니티(community)의 C·M을 조합해
만든 이름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뜻이 담겼다.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가 수시로 열린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195 / 031-269-3760

폐채석장에 피어난 예술, 포천아트밸리

‘포천아트밸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을 종료하면서 주변 환경이 파괴된 채 방치해온 폐채석장을 국내 최초로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이곳의 핫 플레이스는 천주호. 짙은 옥빛의 호수는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화강암 직벽을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 영상과 소리 울림 현상을 이용해 선보이는 독특한 공연은 가슴을 설레게 한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로 234 / 1668-1035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

1912년 일제가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개발한 황금광산인 '광명동굴(구 시흥광산)'은 1972년 폐광된 후 40여년간 새우젓 창고로 사용됐다. 이후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해 역사·문화·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동굴 예술의전당'에서는 3D 홀로그램 영상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가 펼쳐지고, 금을 채굴하던 '황금길'은 진짜 황금 동굴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동굴 지하 세계'에서는 영화 <반지의 제왕> 제작사가 만든 거대한 신비의 용을, '와인 터널'에서는 전국에서 생산하는 와인을 만날 수 있다.

• 경기도 광명시가학로85번길 142 / 070-4277-8902

쓰레기 소각장의 판타스틱한 변신, 부천아트벙커B39

39m 높이의 내부 벙커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부천아트벙커B39'는 강렬한 비주얼과 실험적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예술 공간이다. 1995년 가동한 이래 2010년까지 하루 평균 2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던 쓰레기 소각장을 개조한 듯 안 한 듯 리모델링해 소각장의 매력을 최대한 살린 것이 특징. 가령 쓰레기를 태우던 소각로가 있던 자리는 벽면 일부를 철거하고 채광창을 내어 갤러리로 만들었지만, 유해가스를 내보내던 유인 송풍실과 소각장 및 시설 설비를 통제하던 중앙제어실은 그대로 두고 유리창 너머로 관람하도록 한 것이다. 더러운 곳의 판타스틱한 재탄생을 엿볼 수 있다.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53 / 032-321-3901





건축계 거장과의 만남, 김중업건축박물관

김중업은 프랑스 대사관, 삼일빌딩, 평화의문 등을 설계하며 우리나라 건축계에 크나큰 업적을 남긴 1세대 건축가다. 서구 건축 기술에 우리의 전통 건축과 예술을 접목해 예술로서의 건축관을 정착시키려 노력한 그의 생애와 건축관을 보여주는 곳이 '김중업건축박물관'이다. 2014년 구 유류산업 안양 공장의 연구동을 리모델링해 태어난 김중업건축박물관은 1959년에 김중업이 직접 설계한 건물이라 더욱 뜻깊다. 특히 공장 건물에 조각 작품을 접목하는 등 독특한 형태를 띠어 건축학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다.

안양박물관, 특별전시관, 교육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다른 건물들도 제각기 달라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건축의 특징을 엿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 / 031-687-0909

경기도민 힘내세요! 경기지역화폐가 있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증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등장한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9년 경기 전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경기지역화폐는 골목 상권을 살리고 소비자의 주머니는 두둑하게 해준다는 평가를 받으며 사용액이 크게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지원한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도민이 급증했다. 한번 써본 사람은 충전 금액의 5~10%를 보너스로 주는 혜택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기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골목 상권을 찾는 소비자 덕분에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는 복지와 경제를 향상시키는 경기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힘든 도민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각오다.



4조3,998억9,700만 원

2022년 9월 현재 경기지역화폐 사용액 누계

76.4%

경기지역화폐 20세 이상 가입률(2022년 현재)

6~10%

충전 시 인센티브 혜택

30%

소득공제

0.3%p

신용카드 대비 절감 수수료

PART 1 소상공인·자영업자편

경기지역화폐 덕분에 불황을 이겨내요

경기도 전역에 경기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골목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내 최대 발행액과 이용액을 자랑하는 성남 중앙공설시장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났다.



경기지역화폐를 시행한 지난 3년간 다양한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과 결합,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지역 내 소비자 방문 증가로 실질적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고,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0.3%p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또 경기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과 대형 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희·사행 업소는 사용이 제한되며,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효과가 크고, 결국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 경기도민을 위한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에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면 특별 할인을 적용해 가맹점의 매출 증대 효과도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성과 덕분에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성과 및 우수 사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경기지역화폐가 있으면 고객이 더 많이 소비해요
이미자포차 이미지사장

우리 식당은 어르신 많이 찾는 편이에요. 성남은 모바일과 지류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어르신이 많다 보니 지류를 많이 사용하세요. 지역화폐를 쓰는 손님은 현찰로 내는 분들보다 인심 좋게 많이 쓰셔서 매출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고객은 부담 덜고, 우리는 매출이 높아졌죠
카페 도담도담 박솔지사장

3대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기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전통시장인데도 젊은 층이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충전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니 손님들은 더 저렴하게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며 좋아하세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돼요
충남상회 차영자사장

전통시장이 갈수록 낙후되는데, 그나마 지역화폐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은 분들도 지금은 꾸준히 오시고요. 시장에서는 지류를 사용하는 분이 많은데, 은행에서 경기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받을 때마다 부자가 되는 기분이에요.



안정적 매출에 도움이 돼요
향의 민족 이현준 사장

경기지역화폐가 매출의 30~40%를 차지해요. 덕분에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없으니 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수익이 높아졌어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섭 성남중앙시장 협동조합 이사장

성남중앙공설시장은 교통의 요충지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에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남은 지역화폐를 최초로 도입한 만큼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늘면서 사용처가 확대되다 보니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에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드는 것 같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영세 상인에 대한 지원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절감 효과가 뛰어난 배달특급, 경기지역화폐 이용자로 매출 증대까지!

짬뽕이동구 대표

지난해 11월 구리시에 문을 열 때부터 배달특급 가맹점이었어요. 개업 초기에는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았는데, 1년쯤 지난 요즘은 그런 말이 없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인센티브 혜택이 있으니 좋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많이 절감되어 좋아요. 배달특급과 경기지역화폐가 계속 윈윈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interview

PART 2

소비자편

이웃 상인도 돕고 살림에도 보탬이 돼요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도민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은 것은 바로 인센티브다.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기도민이 늘고 있다.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도민은 6~10%의 인센티브(또는 할인) 혜택과 현금영수증 발행,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경기지역화폐 우대 가맹점을 방문하면 3~10%의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자들은 일석삼조라고 입을 모은다. 지자체마다 충전 가능 금액이나 인센티브 비율에 차이가 있지만, 경기지역화폐는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없는 데다 할인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가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은 81%(1,620명)로 매우 높은 고객 충성도를 보였다.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77%에 달했다.



동네 단골 가게가 생겼어요
김민경(부천시)

예전에는 주로 대형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그런데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동네 가게를 많이 찾게 되더군요. 특히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받은 뒤 집 가까이 있는 정육점이랑 채소 가게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 이전 단골이 됐어요. 사장님들도 덤을 많이 주시고요. 살림에도 도움이 되지만, 동네에 이웃이 있다는 걸 느끼게 돼 더 좋아요.

현금처럼 사용하다 보니
신용카드보다 더 친숙해요
김남현(일산시)

2년 전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처음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올해 취업하기 전까지 취업 준비를 하느라 집 근처에서 공부할 일이 많았는데, 그때 경기지역화폐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충전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저 역시 충전 금액만 쓰려고 하다 보니 아껴 쓸 수 있었거든요. 취직할 지금도 신용카드보다 경기지역화폐가 더 편리해요.



10% 인센티브가 살림에 큰 도움이 돼요
정미경(화성시)

저는 매달 1일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경기지역화폐를 충전하는 거예요. 50만 원을 충전하면 5만 원을 더 주니 큰 이득이죠. 얼마 전 인센티브를 6%로 내렸을 때는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많았는지 다시 10%로 회복되어 다행이에요. 세금 공제도 되니까 서민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생활을 알뜰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이지민(양주시)

'경기도 문화의 날' 기간에 도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 문화시설 이용료 기준으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한 만큼 일정 금액이 환급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저는 집 가까이 있는 오토캠핑장에서 캠핑을 한 후 현장에서 이용권 구매 확인 후 지역화폐로 지급받았어요. 물가도 올랐는데 경기지역화폐가 이런 행사도 해주니 문화생활도 알뜰하게 즐기고, 그만큼 문화시설이 활성화되어 지역 주민 입장에서 대환영이에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복지 혜택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부모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50만 원을 지급하는 산후조리비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대표적 복지 혜택이다. 이 외에도 농민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등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또 지역 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소비지원금 사업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은 점차 대상을 확대해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의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합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브랜드, 어떤 디자인인지 궁금하셨죠?
도정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의 가치를 담은 도정 브랜드 그리고
도민과 유연하게 소통하는 '유쾌한 반란'을 시각화한 캐릭터 붕공이, 이제 도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7일 민선 8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본형 시그너처(상징물)를 보완하고, 이를 기준으로 ▲응용형 시그너처 ▲도정 슬로건 캐릭터 ▲서식·충무류 등 가이드라인을 담은 총 40종의 매뉴얼을 개발·제작했다. 도는 이번 개발 과정에서 경기도 주무관이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시그너처 디자인과 캐릭터를 비롯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행정 혁신'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도는 새로 개발한 브랜드를 도민 접점에 활용하는 등 민선 8기 도정 가치가 도민의 일상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민 중심 행정이 실현되도록 도정 슬로건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 상징물로는 경기도의 한글 초성을 활용한 경기도 기와 경기도 색깔을 담은 서체인 경기천년체, 비둘기, 은행나무, 개나리 등이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쉬어요'라는 경기도 노래를 추가했다.

도정 슬로건 기본형,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민선 8기 핵심가치인 혁신·기회·통합을 시각적으로 구현했어요



COLOR

- 청록색
균형과 조화
- 파란색
안정과 희망
- 연두색
행복과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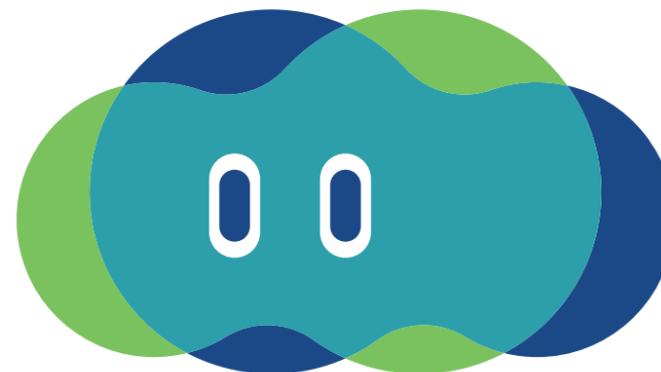
유기적 형태가 겹쳐진 모습은 유연하고 합리적 자세로 소통하는 경기도를 의미하며, 비대칭적으로 교차하는 모습은 경기도가 변화와 기회를 계속 완성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고는요?

부드러운 테두리와 대비되는 강한 로고 타입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의 중심으로서 책임 있는 경기도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도정슬로건 캐릭터 붕공이

경기도정만의 유쾌한 반란을 표현했어요



경기도정만의 유쾌한 반란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경기도청의 마음도 담았습니다. 붕공이의 다양한 표정이 귀엽고 유풍 있지요?

왜 붕공이인가요?

경기도 민선 8기 도정 슬로건에서 파생한 캐릭터 '붕공이'. 이름은 변화·기회의 자음인 **ㅂ**, **ㅎ**, **ㅇ**, **ㅎ**를 세로로 배열해 완성했습니다.

붕공이라는 이름은 나라나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한다는 붕공의 사전적 뜻이 담겼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목민심서> 제3편 붕공6조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합니다.

info

귀여운 붕공이 캐릭터가 연말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출시될 예정이에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단풍 깊어가는 가을을 걷다

파란 하늘 아래 알록달록 눈부신 단풍이 화려하다. 경기도의 가을도 나날이 깊어가며 붉은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화려한 가을 속으로 들어가보자.



역사적 의미만큼 가을빛도 장관인 광주 남한산성

역사적 의미와 건축미도 상당하지만, 남한산성은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가을 여행 명소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풍경과 화려한 단풍이 어우러지고, 등산로와 성곽이 잘 보존 되어 가을을 만끽하며 산행하기 좋기 때문. 총 5개 등산로 겸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중 1코스는 남한산성 성곽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준다. 산성종로 로터리를 출발해 북문과 서문을 거쳐 남문으로 내려오는 1코스는 평탄해서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가을이 되면 시작점인 산성종로 로터리 바로 옆 침괘정 일대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장관을 연출한다. 제4코스는 가을 단풍에 특화된 길. 남문에서 남장대 터를 지나 동문까지 이어지는 길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화려한 남한산성 단풍의 진수라 할 수 있다. 알록달록한 단풍 속으로 빨려드는 성곽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가을 정취에 흠뻑 빠지게 된다.

주소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
문의 031-8008-5155



가을 정취 가득한 염전길 시흥 갯골생태공원

염전이 문을 닫은 지금 시흥의 염전과 그 일대는 생태 체험과 철새 관찰, 소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갯골생태공원으로 바뀌었다. 시흥 갯골은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골로, 내륙 안쪽으로 깊숙이 형성된 갯골이다. 갯골을 따라 바닷물이 들어 오고 나가니 염전을 만들어 천일염을 생산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갯골생태공원은 갯골을 감싸고 조성됐다. 염전 체험장, 소금 창고, 갯골 생태 학습장, 탐조대, 사구 식물원 등 볼거리가 다채롭다. 그뿐 아니라 가을이 되면 칠면초·나문재 등 염생식물의 색이 짙어지고, 갈대와 억새가 우거져 아름답기 그지없다. 잘 정비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붉은발농게, 방게 등 갯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을 만날 수 있다. 산책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6층 높이의 전망대에 오르면 가을 품은 갯골생태공원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주소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287 문의 031-488-6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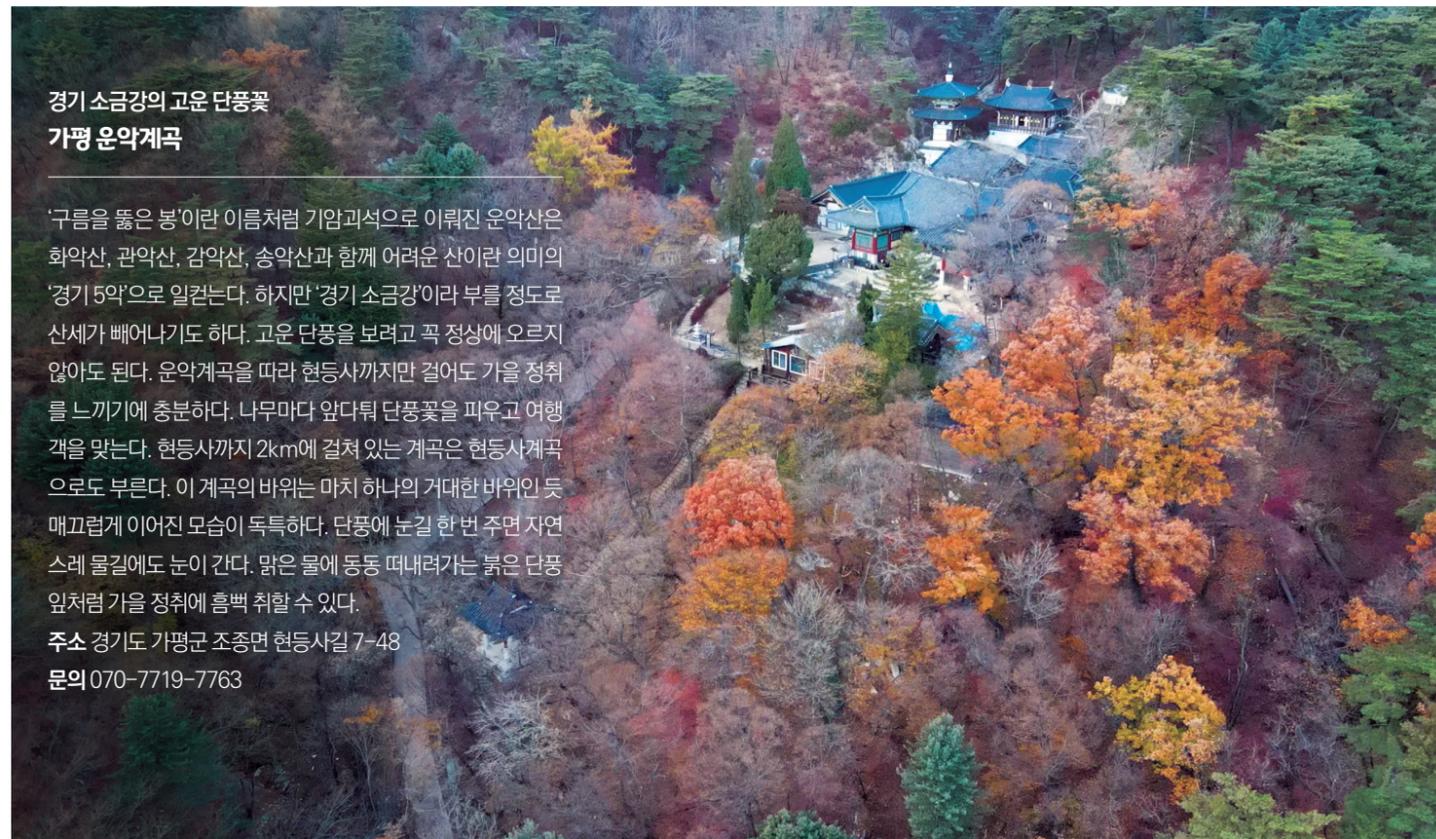


천년 은행나무의 전설
양평 용문사

용문산은 전국구로 소문난 단풍 명소다. 가을이면 온통 울긋불긋 화려한 단풍이 들어 보는 이를 설레게 한다. 그중 가장 아름다운 구간은 온통 섯노랗게 물드는 용문사 은행나무. 동양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로, 그 키가 자그마치 42m나 된다.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되었으며, 추정 수령은 무려 1,100년이다. 의상대사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꽂았더니 나무로 자랐다는 전설과 신라의 마지막 세자인 마의태자가 나라 잃은 슬픔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던 중 이곳에 들러 심었다는 설도 있다. 용문사를 끼고 흐르는 계곡도 물빛이 오색 빛깔이다. 단풍이 비쳐서도 그렇고, 낙엽이 떨어져서도 그렇다. 300m가 채 되지 않는 짧은 길이지만, 사진과 마음에 가을을 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난다.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782 **문의** 031-773-0088

경기 소금강의 고운 단풍꽃
가평 운악계곡

'구름을 뚫은 봉'이란 이름처럼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운악산은 화악산, 관악산, 감악산, 송악산과 함께 어려운 산이란 의미의 '경기 5악'으로 일컫는다. 하지만 '경기 소금강'이라 부를 정도로 산세가 빼어나기도 하다. 고운 단풍을 보려고 꼭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된다. 운악계곡을 따라 현등사까지만 걸어도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나무마다 앓다튀 단풍꽃을 피우고 여행객을 맞는다. 현등사까지 2km에 걸쳐 있는 계곡은 현등사계곡으로도 부른다. 이 계곡의 바위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바위인 듯 매끄럽게 이어진 모습이 독특하다. 단풍에 눈길 한 번 주면 자연스레 물길에도 눈이 간다. 맑은 물에 동동 떠내려가는 붉은 단풍잎처럼 가을 정취에 흠뻑 취할 수 있다.
주소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7-48 **문의** 070-7719-7763



광릉 숲에서 즐기는 가을 정취
포천 국립수목원

광활한 원시림인 국립수목원은 유네스코 생물 보전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조선 7대 임금인 세조의 능림(陵林)으로 지정된 이후 540여 년간 보존해온 천연 자연림인 광릉 숲이 깊어가는 가을을 따라 알록달록 화려한 색으로 치장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희귀·특산식물보존원, 수생식물원 등 전문 전시원 26곳과 3,300여 종의 식물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참나무와 단풍나무류 등 다양한 낙엽활엽수가 아름다리 우겨져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당단풍나무와 복자기로 붉게 물든 육림호 인근은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유명하다. 국립수목원을 탐방하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문의** 031-540-2000



아늑하며 경건한 가을 소풍
화성 남양성모성지

남양성모성지는 병인박해 때 수많은 무명의 평신도가 생명을 잃은 곳으로, 1991년 마리아 축일에 성모께 봉헌하며 한국 천주교 최초의 성모 순례지로 공표한 곳이다. 잘 가꾼 정원과 숲이 성모의 품처럼 편안함을 자아내며, 특히 경건한 가을 풍경 속에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며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가을 단풍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는 성 요셉상 주변과 20단 목주기도의 길. 20단 목주기도의 길은 성지의 정원과 숲의 오솔길을 지나며 굽이굽이 이어지는 '기도의 길'로, 걷는 것만으로 고단함을 치유받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 길 끝에는 자애로운 남양 성모상의 부드러운 미소가 기다린다. 천주교 신도가 아니더라도 고즈넉하게 가을 소풍을 즐기기에 제격인 곳이다.
주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12 **문의** 031-356-5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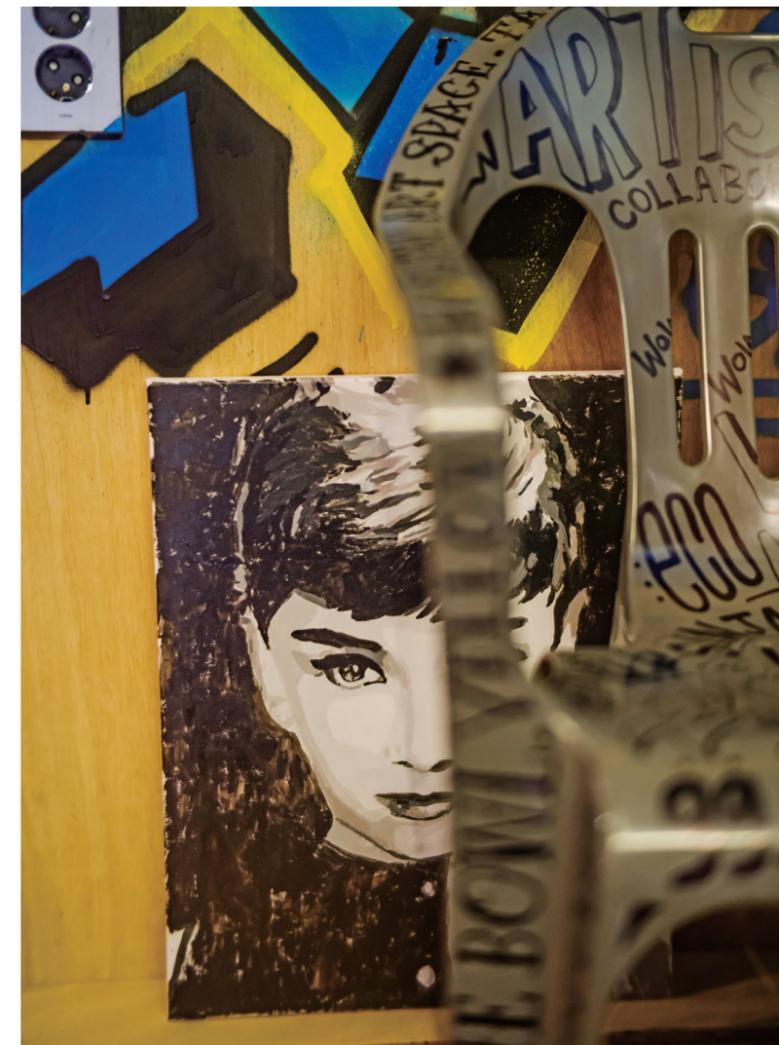


찬란하게, 현란하게! 거리의 예술가 빈울

누군가는 예술이라 하고, 누군가는 흉물스러운 낙서라고 한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낙서가 될 수도, 예술이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시대가 변하면서 도시 정체성을 만드는 새로운 거리 예술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장소에 스프레이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이야기다.

미국 문화가 주류를 이루는 송탄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래피티 (graffiti)가 자연스러운 거리 예술로 인식되었다.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그래피티를 만나볼 수 있는데, 그중 평택국제 중앙시장 뒤쪽에 있는 철길을 채색한 그래피티가 단연 눈에 띈다. 시장의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이 벽화는 평택국제중앙시장의 랜드마크가 됐고, 포토 존으로 인기가 높다. 이 그래피티 작업을 한 사람은 평택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빈울. 주말을 맞아 관광객과 동네 주민(외국인, 한국인)이 북적대는 기차길에서 그를 만났다.

Q 경기도에서는 이미 유명하시는데,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빈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수입니다. 그래피티 작가들은 본명 대신 태그 네임(tag name, 서명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피티 자체가 불법적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본명을 쓰지 않았죠. 빈울은 '찬란하다, 현란하다'라는 뜻의 한자 이름입니다. 내·외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어 찬란하게 빛나고 싶다는 소망을 담았어요. 평택시 출신으로 이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벽화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언제부터 벽화를 그리셨는지, 계기는 무엇인지요? 20대에 서울 홍대 근처에서 10년 정도 살다가 평택시 송탄으로 내려왔는데,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송탄만의 매력이 눈에 띄더라고요. 송탄, 특히 미국 부대가 있는 이 신장동은 이태원보다 더 글로벌하고, 더 미국스럽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지요. 그런데 그런 장점들이 사라져가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웠죠. 송탄의 특수한 도시 문화 콘텐츠를 보존·발굴하고 싶어 주변의 몇몇 문화 예술가들과 함께 거리 페스티벌 같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라피티를 접하게 됐는데, 잊고 있던 어린 시절 화가의 꿈이 다시 떠오르면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로 시작했다가 폭 빠지게 됐죠. 벌써 7~8년 됐네요.

Q 주로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시나요? 고대 문자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독특한 타이포그래피를 만들어낸 '라틀라스(L'Atlas)'라는 작가가 있는데, 저도 것처럼 글자를 많이 이용합니다. 원래 저는 글자를 매우 좋아해서 1930~1950년대 뉴욕의 간판 같은 아날로그적 감성의 글씨가 좋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작업도 스프레이보다는 붓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벽이나 천에서 표현되는 붓의 질감이 글자의 감성을 더 잘 드러내는 것 같거든요.

송탄은 제 삶이에요.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살았어요. 홍대 앞에서 생활한 10년이 유일한 탈송탄이었지요. 이걸 제 꿈인데요, 신장동 일대가 세계적 그라피티 성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Q 대표적 작품을 소개해주세요. 기차길에 작업한 '컬러풀 스트리트' 프로젝트가 아닐까요. 미군 기지 오산에어베이스의 군사물자 수송 기능을 담당하는 평택선 일부 구간이 평택국제중앙시장 뒤쪽에 있어요. 김윤아·오피·이병찬 등 작가 3명 그리고 보조 작가 10명과 함께 평택선(경부선의 지선)의 88m 구간을 페인팅했죠. 송탄의 알파벳인 'SONGTAN COLORFUL STREET'를 익살맞은 필체로 적고, 다양한 인종과 톱톡 튀는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형형색색의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비행기, 햄버거 등도 그려 넣었지요. 송탄이니까요.

Q 지금 하시는 작업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2020년 경기문화재단의 지역 문화 자원 발굴 및 재생 공모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민과 예술인이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신장동에 만들었는데, 이곳을 '한치각'이라고 합니다. 한치각이란 건축에서 기본이 되는 목재인 '서까래'를 이르는 우리말이에요. 문화 예

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기차길과 신장쇼핑몰 공영 주차장 프로젝트가 한치각 작품이죠. 현재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경기에코뮤지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의 생태나 문화 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이죠. 저와 오피, 안민욱, 김종훈, 허창범, 이의석 등 6명의 작가가 참여해 중앙시장로 11번길 골목을 송탄만의 특색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피티로 다 채우는 건 아닌 듯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어요. 일종의 공공 예술 형식으로요. 주민은 물론, 관광객이 쉴 수 있도록 군데군데 특색 있는 의자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죠.

Q 평택시 송탄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송탄은 제 일부예요. 홍대에서 여러가지 경험과 커리어를 쌓고 자리잡게 된 곳이 송탄 신장동입니다. 이걸 제 꿈인데요, 신장동 일대가 세계적 그라피티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시 같은 작가가 쭈그리고 앉아 그림도 그리고, 그걸 SNS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

어 다들 부러워하고, 어깨에 힘 좀 준다는 작가들이 앞다퉈 이곳을 찾는 거예요. '내 작품 하나 정도는 이곳에 있어야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꿈을 꾸면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웃음)

빈을 작가는 "신장동은 미군과 함께 해온 독특한 문화를 지닌 전국에서 유일한 동네"라며 "역사를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문화와 예술로 기록하고, 지키고 싶다"고 한다. 이런 신념을 가진 지역 문화 예술인이 있기에 개성 있는 지역 문화가 꽃피게 아닐까? 송탄의 이야기와 삶의 흔적이 그라피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피어나길 기대해본다.



‘대한독일인’ 린데만의 신나는 한국살이

‘대한독일인’이라 불리는 다니엘 린데만.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에게 모범생 이미지를 각인시켜준 그가 최근에는 피아니스트이자 합기도 사범으로 변신했다. ‘수원화성문화제’에서 한 코너를 맡은 다니엘 린데만을 만나 프로 N잡러의 근황을 들었다.



지난 10월 8일(토) 저녁 수원 행궁 광장 쉼터 무대에서 수원화성 문화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야기 콘서트 ‘정조실감’이 열렸다. 정조대왕과 예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관객과 소통하는 이야기 콘서트의 첫날 무대 주제는 미술이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손미정 교수와 함께 정조대왕 시절 예인인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추사 김정희 등의 작품 해설을 듣고 그에 대한 소감을 말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간 사람은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었다. 우리에게 독다니엘이라는 별명으로 익숙한 그가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인지 늦은 시간에도 관객들은 자리를 지키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1시간가량의 행사가 끝난 후 다니엘 린데만을 무대 뒤에서 만났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강연을 참 좋아해요. 오늘처럼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강연도 배울 것이 많아서 좋아하고요. 이런 행사나 방송을 통해 한국 역사와 문화를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독일 본 대학에서 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학을 공부한 다니엘 린데만은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한국사에 조예가 깊다. 프로그램에서 정조를 접한 적이 있다는 다니엘이 알고 있는 정조의 모습은 책을 사랑한 만큼 회식(會食)도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대신들을 모아놓고 함께 술과 음식을 즐기는 것을 몹시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취할 때까지 아무도 집에 못 가게 하면서요. 이곳 행궁에서 가까운 시장이 있는데, 그곳에 정조가 술 마시는 동상이 있을 정도예요.” 대한독일인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는 그는 특히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가 행궁이라고 털어놓았다. 방송 촬영을 위해 행궁을 찾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알베르트·럭키 등과 방문하기도 했고, 어머니가 독일에서 잠시 다니러 오셨을 때도 행궁을 찾을 정도였다. 문화제와 역사 그리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수원화성문화제 같은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하는 그에게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읽을 수 있었다.



수원 행궁처럼 경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곳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체성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 올바른 역사관·문화관을 지니려면 문화재를 많이 찾아보고, 문화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친환경 생활, 고기 소비부터 줄여보실래요?

그가 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 환경 관련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팔로워들에게 “시간이 없다, 급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이 깊다.

“우리 모두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모두 급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위기감을 느끼는 콘텐츠를 볼 때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철저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생활 속에서 가급적 친환경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니엘은 정부와 기업이 먼저 나서야겠지만, 시민도 생활 속 친환경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외출할 때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 빼기,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많이 걷기 등도 중요하지만, 고기 소비 줄이기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식주의자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지금보다 덜 소비하자는 거예요. 소나 양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도 하지만, 이들을 키우기 위해 나무를 잘라내고 평지를 만들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연구자들은 지구온난화 원인은 50% 정도가 축산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저도 운동을 하느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고 있어요.”

또한 생산과정을 잘 살펴서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옷을 고르고, 오랫동안 입을 습관을 들이는 것도 지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 생활에 동참하자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생산과정을 잘 살펴서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옷을 고르고, 오랫동안 입을 습관을 들이는 것도 지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 생활에 동참하자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저의 변신을 기대해주세요

그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독일에서 태권도를 하면서부터다. 그렇게 관심을 갖던 한국을 처음 찾은 것이 2008년, 그 후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우리에게 친숙

한 독다니엘로 다가왔다. 그런 그가 스스로를 프로 N잡러라고 부른다. 방송인 외에도 저녁이면 합기도 사범으로 일하고, 피아노 작곡과 연주도 하며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

“저는 취미로 시작한 것도 흥미를 갖게 되면 가급적 프로가 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합기도도 배우면서 지금은 부족하나마 사범을 할 정도로 발전했고, 음악도 취미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빠져들어 저의 직업으로 평가받아도 될 정도로 활동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디에 빠질지 모르지만, 또 새로운 것을 만나면 프로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어릴 때 독일에서 오르간을 친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르간이 없어서 집에서 피아노를 치다가 약 5년 전부터 아예 본격적으로 피

그는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외출할 때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 빼기,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많이 걷기 등도 중요하지만, 고기 소비 줄이기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니스트로 나서게 됐다. 피아노 연습을 하며 생각나는 대로 곡을 쓰다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생각해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자신이 작곡한 곡을 직접 연주한 음반을 내기도 했다. 요즘은 베이스·드럼·색소폰과 합주하거나, 베이스·드럼만으로 공연하기도 하고, 작년 연말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현악4중주와 피아노, 베이스, 드럼, 색소폰 8명이 공연하기도 했다. 최근 근황이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활

동이어서 공연을 위한 연습이나 재즈 피아노 연습에 몰두할 때가 많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즐겁다 보니 한국에 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다니엘 린데만. 오늘 참가한 행사처럼 역사와 문화 등 모두에게 유익한 행사가 더 많이 경기도 곳곳에서 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비쳤다.

“수원 행궁처럼 경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곳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체성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문화관을 지니려면 문화재를 많이 찾아보고 이런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를 잊지 않아야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의 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다.



푸른 지구와 일자리 만든다 라라워시 용인점

배달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회용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광역자활센터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임과 동시에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2021년 다회용기 세척 전문 브랜드 '라라워시'를 론칭했다. 경기도 내 17개 지점을 보유한 라라워시 중 지난 8월 개소한 용인점을 찾았다.

라라워시



“일회용기 사용이 많은 배달 음식점, 카페, 행사장, 공공 기관, 장례식장 등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하고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수거부터 세척,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고객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용인지역자활센터 박미숙 실장은 '라라워시'가 일회용기를 줄일 뿐 아니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한다. 라라워시 용인점은 231m²(약 70평) 규모에 불림 애벌 세척부터 초음파 세척, 고온·고압 세척, 고온 살균, 세균 오염도(ATP) 검사, 진공포장까지 6단계 공정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하루 3,000여 개 식판과 컵 등을 세척할 수 있는 것. 라라워시는 2020년 경기광역자활센터가 어린이집,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식판을 세척하는 식판 케어 사업을 다회용기 세척으로 확장해 2021년 론칭한 다회용기 세척 전문 브랜드다. 용인지역자활센터는 관내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고, 경기광역자활센터의 다회용기 세척 사업 '시설 장비 구축 지원비' 공모를 통해 장비를 갖춘 후, 지난 8월 라라워시 용인점을 개소했다.

“라라워시는 자활 근로 사업단으로, 1·2차 세척된 식기류를 자활 참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하나하나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세척 사업장과 달리 자활 근로 참여 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세척 식기류 전부를 검사할 수 있는 거죠.” 현재 라라워시 용인점에서는 총 11명의 자활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일회용기 줄이기 캠페인도 적극 나서

라라워시는 다회용품 세척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용인 제로 웨이스트, 박람회 등 지역 행사에 참여해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며 다회용기 세척 사업에 대한 홍보도 진행 중입니다. 라라워시에서 일하는 자활 근로

자들도 자신들의 일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어 보람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용인지역자활센터 유민정 팀장은 10월부터 영유아 기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키즈노트'에 입점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유아 식판 세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또 경기도 내에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세척 서비스 관련 문의가 들어올 때 인접한 지점으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더 확장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팀장은 “지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이 안정되면 장차 자활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자활 근로자는 4~5년 정도 자활센터에서 일한 후 자활 기업을 창업하거나, 취업을 통해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함께 일하는 분 중에서는 라라워시 창업에 뜻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어서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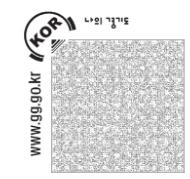
라라워시의 활약을 응원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070-4947-8031로 연락하면 된다.

tip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광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으로, 취업·창업과 기업 성장 등 우리 사회 저소득·취약 계층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기획·수행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경기도 내 33개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해 자활 참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과 실무 역량 강화에 일조하고 있으며, 창업 희망자가 기업 설립부터 시장 환경에 적응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영, 인사 노무, 마케팅, 판로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친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성숙한 단계의 자활 기업이 한 단계 높이 도약하도록 동일 업종 규모화와 공동 브랜드 사업 추진, 자활 복합 단지 운영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문의 경기광역자활센터 031-267-0140-3





시민이 만드는 스마트 시티, 고양

2004년 지능형 교통 체제를 구축하며 스마트 시티 사업을 시작한 고양특례시는 고양 시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리빙랩을 운영 중이다. 교통, 방범, 방재, 환경, 의료, 복지, 에너지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고양시 스마트 시티 서비스는 '2020 대한민국 지식혁신 스마트시티 대상'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tip

시민해결단과 함께하는 리빙랩 프로젝트

리빙랩이란 '일상생활 속 실험실'이란 뜻으로,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혁신하는 플랫폼이다. 공공·민간·시민의 협력 체계 또는 과학과 사회 현장의 통합 모델을 시도하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시민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후 기술 실증에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그동안 초등학교 인근 교통 위험 지역 해소, 일방통행지역 역주행 방지로 사고 감소 등 생활 곳곳의 시민 불편 문제를 해결했다. 문의 고양스마트시티지원센터 031-960-7861



1

초등학생 보행을 안전하게~ 스마트 IoT 보행로 서비스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접목해 횡단보도에 접근한 어린이에게 스마트 앱을 통해 차량 접근을 알려줌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바닥 경광등과 안전 신호를 이용해 차량 운전자에게 어린이가 보행하고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안전을 확보하는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 리빙랩 프로젝트다. 교차로에서 바닥 경광등과 안전 신호로 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스마트 교차로, 휴대폰을 보면서 보행하는 어린이에게 차 조심하라는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스몸비깨우기, 보행자 통행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보행자 알리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에게 차량 속도를 알려주는 제한속도 알리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스마트 횡단보도 등이 있다.



2

치매 노인과 발달장애인 실종을 예방해요 꼬까신

꼬까신은 스마트 인솔 위치 서비스로 실종 위험이 높은 치매 노인이나 발달장애인의 신발 밑창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장착해 현재 위치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알려준다. 만에 하나 실종이 났어도 위치가 파악되므로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다. 환자가 미리 설정한 안전 구역을 이탈하면 보호자나 시 보건소 직원에게 이를 알리는 기능도 있다. 2018년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리빙랩 실증을 완료한 후 2020년 장애인 복지관 리빙랩 실증을 완료했다.



3

일방통행로의 역주행 사고를 예방해요 스마트 역주행 방지 알리미

스마트 알리미는 첨단 기술을 도입해 역주행 차량을 사전에 검지한 뒤 일방통행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진입한 역주행 차량은 우회하도록 다른 길을 안내하는 스마트 역주행 방지 서비스다. 유동 인구가 많은 일방통행 구역의 역주행을 예방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주행 알리미 작동 시 64% 정도 역주행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 사업은 시민 문제 해결 리빙랩으로, 시민이 직접 발굴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서 만족도가 높다.



4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줘요 스마트 에어클린 버스 셸터 서비스

버스 정류장 입구에 에어커튼을 설치함으로써 버스 정류장 외부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에는 공기 정화 장치를 통해 공기 질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고양시의 고도화된 IoT 인프라를 활용해 중앙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자동 제어도 할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효과뿐 아니라 지진이나 홍수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최단 거리의 대피 장소를 안내하고, 폭염이나 혹한 시 냉난방을 자동으로 구동한다. 아울러 버스 정류장의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 및 지능형 시스템 구축에도 활용할 수 있다.



공릉천 갈대

도선희

끊임없이 흐르는 공릉천 물도
가끔은 들어오고
가끔은 바다로 빠져나간다
삶이 그러하듯

춘삼월 춘정(春精)에 겨운
새들의 지저귀는 바람 따라 흩어지고
석양 노을에 가을과 독방을 터벅터벅 걷는
그대 삶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잠시 공릉천 바람에
나를 맡기고 저 석양빛에 나를 비추니
돌아가신 부모님 생전 모습에
잠시 발걸음 멈추고 더듬는 길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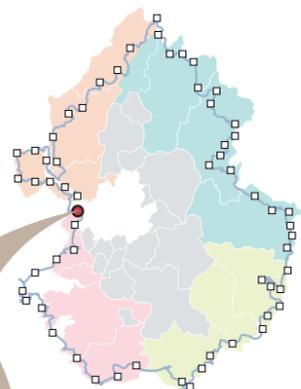
늦봄 공릉천 갈대는 시리도록 푸르고
늦가을 갈대는 가벼이 바람에 실려
장삼 자락 뿌리치듯 군무(群舞)를 추는 듯하니
어찌 저 속마음을 가늠이나 해볼까

※공릉천은 경기도 양주시·고양시·파주시를 거쳐 한강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공릉천이라는 이름은 파주시에 있는 파주 삼릉(공릉, 순릉, 영릉)의 공릉에서 유래했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나의 경기도〉가 독자
여러분의 작품을 지면에
답어드립니다. 경기도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름과 연락처,
시·수필·콩트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magazine@gg.go.kr

물길 따라 뱃길 따라 걷는 길 경기둘레길 부천 56코스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생태 하천에서부터
서해 바다로 향하는 아라뱃길까지 이어진,
도시·사람·자연이 조화를 이룬 길이다.



코스 정보

부천 오정대공원~ 두리나루~
평교다리-아라김포여객터미널 앞
거리 15.6km
소요 시간 4시간 50분
난이도 매우 쉬움



오정대공원을 나와 베르네천을 지나면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굴포천으로 이어진다.
굴포천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때 사람들이
배의 안전 운항을 바라며 조성한 하천이다.



늦가을에 더 멋진 부천 '황금들판길'

부천을 대표하는 오정대공원에서 출발하는 코스. 자전거 문화 센터가 있어 자전거공원으로도 불린다. 공원 안에는 자전거 박물관, 자전거 면허시험장, 자전거 둘레길을 조성해 자전거를 타고 아름다운 공원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도 좋다. 56코스의 출발 스탬프는 자전거 문화센터 앞, 오정대공원 표지석 옆에 있다. 공원을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조성한 산책로를 지나면 생태 하천으로 거듭난 베르네천이 나온다. 베르네는 '남떠러지를 휘감고 돌아가는 벼랑내'라는 뜻으로, 도심 속 습터이자 물길 산책로다.

상쾌한 시냇물 소리에 맞춰 발걸음을 옮기면 농로와 이어지는데, 이맘때면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판을 만날 수 있다. 부천 둘레길 4코스 '황금들판길'로,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 사이에 걸으면 이 코스의 진면모를 볼 수 있다.

은빛 역사와 철새들의 날갯짓이 평화로운 수변길

베르네천을 지나면 굴포천으로 이어진다. 굴포(掘浦)는 '하천을 파다'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 자연 하천이 아니라 인공 하천이다. 굴포천 초입에 그 유래를 적은 표지판이 있다. 고려 시대 이후



시작점 찾아가기
부천종합터미널

- ▶ 59번 버스(약 46분 소요, 평일 10~20분, 주말 15~25분 간격)
- ▶ 신동문아파트 하차 7호선 춘의역
- ▶ 12번 버스(약 27분 소요, 평일 10~20분 간격, 주말 20~30분 간격)
- ▶ 오정동 OBS경인방송국 하차



아라뱃길에 들어서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삼남(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서 곡물 등을 실은 배가 바다를 거쳐 한강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많은 배가 강화 손돌목에서 암초에 부딪혀 피해를 입자,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때 사람들이 배의 안전 운항을 바라며 조성한 하천이다. 지금은 인천 계양과 경기 부천을 잇는 생태 하천으로 거듭나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뽐낸다. 굴포천 물길을 따라 이어진 은빛 역새와 천변을 가로질러 날아오르는 철새들의 평화로운 전경은 놓치지 말자. 사진으로 담기에도 멋진 풍경이다. 중간중간 쉼터를 조성해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구간은 자전거길과 공유하는 만큼 주의해서 걸어야 한다.



아라뱃길은 보행로와 자전거길을 구분해놓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허영호
산악인자 탐험가.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작으로 3극점과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오른 인류 최초의 산악인이다. 드림앤어드벤처 대표로 등반, 트레킹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그는 경비행기 세계 일주도 준비 중이다.



아라김포여객터미널 옆에 있는 아라마리나. 이곳에선 요트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한강으로 이어진 뱃길 풍경

굴포천 굴다리(토끼굴)를 지나면 아라뱃길과 만난다. 이곳부터는 길이 넓어 보행로와 자전거길을 따로 구분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두리나루를 지나면 '아라파크웨이마당'이 나온다. 화장실과 푸드 트럭이 있어 휴식을 취하기 좋은 장소다. 이 구간에는 전망대, 아라뱃길 지형을 형상화한 아라파크웨이 미니어처, 아라뱃길조각공원 등 볼거리가 다양해 걷는 재미를 더한다. 아라뱃길을 지나면 하나교, 전호교가 나온다. 다리에서 내려다본 아라뱃길 풍경은 56코스의 뷰포인트 중 하나다. 탁 트인 풍광에 가슴까지 시원해진다. 56코스의 종점이자 57코스의 시작점을 알리는 스탬프 함은 아라김포여객터미널 주차장 옆에 있다.

아라뱃길조각공원에는 대학생들이 참여해 제작한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있다.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이다.



사진 촬영 명소



두리나루

굴포천과 아라뱃길의 합수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나루. 역새발, 철새 등 아라뱃길의 가을 풍광을 담기 좋은 장소다. 근처에 생태 공원과 캠핑장도 있다.

아라뱃길조각공원

아라뱃길조각공원에는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중앙대 학생들이 참여해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다양하고 독특한 작품과 함께 사진을 찍어볼 것을 추천한다.



tip

가족 코스

오정대공원
부천 오정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산책로, 실개천, 쉼터 등을 잘 조성해 가족끼리 걷기 좋다. 또한 자전거 문화센터에는 자전거 박물관과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



경기둘레길 부천 56코스 바로 가기

35년 전통의 피자집 양주 피자성효인방

피자노포를 보았는가?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가면 아주 특별한 피자노포를 만날 수 있다.

오래된 가게를 '노포'라고 부른다. 식당 외에도 이발소, 미용실, 지물포 등 모든 가게는 다 노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만큼 노포라고 하면 식당이 대부분이다. 노포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다. "오래도록 이 가게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존해야 할 장소입니다."

여기에 맛도 좋다면 더할 나위 없다. '피자성효인방'이 그런 곳이다. 어렵게 섭외해 대표인 정복모(73) 관장을 만났다. 그가 식당 대표가 아니라 관장인 것은 이유가 있다. 병설한 청암민속박물관 때문이다. 개인 근현대 박물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소장품과 구성도 최고 수준이다.

"들어간 자금이 말도 못하게 많았죠. 저안에 있는 수십 개의 근현대사 장면들(대포집, 학교 교실, 단칸방, 대장간, 극장 등 추억 어

린 장소가 망라되어 있다)은 다 제가 꾸민 거예요. 대충 한 게 아니라 작가와 공방에 맡겨서 제대로 제작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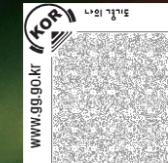
아닌 게 아니라 옛 직업군의 온갖 모델이 등장하는데,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몸동작과 균형, 표정이 생생하다. 그런데 이것이다 개인이 일군 것이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원래는 무료였어요. 지금은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해서 입장료가 있습니다. 저도 이곳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줬으면 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이제 능력이 부칩니다."

SINCE 1988, 한국식 피자 가게를 열다

예전에는 근처의 일영·장흥 유원지가 계곡이 좋고 물이 맑아서 행락객이 많이 찾았는데, 박물관과 피자집이 있는 곳은 논과 밭 그리

그가 식당 대표가 아니라 관장인 것은 이유가 있다. 병설한 청암민속박물관 때문이다. 개인 근현대 박물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소장품과 구성도 최고 수준이다.





박찬일
누군가는 '글 쓰는 셰프'라고 하지만 본인은 '주방장'이라는 말을 가장 아낀다. 오래된 식당을 찾아다니며 주인장들의 생생한 증언과 장사 철학을 글로 써서 사회·문화적으로 노포의 가치를 알리는 데 일조했다. 저서로는 <백년식당>, <노포의 장사법> 등이 있고 <수요미식회> 등 주요 방송에 출연해왔다.



**“우리 손님은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짤 피자는 안 좋아하세요.
대신 아삭한 피클을 같이 만들어서 드려요.
정성을 들이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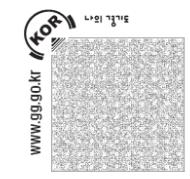
피자성효인방
주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83-5
문의 031-855-5220



고 약간의민가가 있는 한적한 곳이었다. 요즘은 개발 바람이 불어 이 시설물들의 시야를 가린다. 세상이 바뀐 것이다. 구파발역에서 10km가 안 되는 가까운 곳이라 거주지로서도 가치가 생긴 것이다. “제 평생을 바쳐 일군 박물관이고 피자집이니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아예 대기업 다니던 아들(정석원, 44)을 불러서 관리 사장으로 임명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70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6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관장은 엄청 몸을 빠르게 움직인다. “모든 걸 제 손으로 다 하느라 그게 버릇이 됐어요. 많이 움직이니 늙지 않는 건가 봅니다.(웃음)” 피자성효인방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국내 최고(最古) 피자 식당이다. 더러 프랜차이즈가 남아 있을지는 몰라도 개인 가게로는 최고령인 듯하다. 정 관장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릴 무렵이 자리에 피자집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엔 일을 배울 곳도, 모범으로 삼을 가게도 없던 시절이었다. 다행히 미군 부대에 지인이 있어서 방문했고, 그때 007 같은 활약을 펼치게 되었다. “그때 피자에 관한 책이 있길 해요, 셰프가 있길 해요? 미군 부대가 유일했을 거예요. 무작정 찾아갔죠. 소스 레시피를 가르쳐달라고, 절대 안 된답니다. 불법이래요. 자, 어떡하느냐...” 그는 피자 소스가 미국에서 온다는 데 착안했다. 다 쓴 소스 통은 버릴 것이다. 부대 밖으로 나간 통을 가져오는 건 가능했다. 그는 소스 통 버리는 날을 알아내고 기어이 입수했다. “지금이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어디에도 소스 레시피가 없었어요. 통을 보니 원료가 쓰여 있는 겁니다. 오레가노, 소금, 후추, 설탕, 울드스파이스, 토마토 등등 이런 게 다 쓰여 있었죠. 그 소스는 의정부나 남대문 도깨비시장(미군 부대 유출품을 취급하는 암시장)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당시만 해도 피자집이 없을 때라 찾는 사람도 없었던 거죠. 제가 이리저리 재료를 구해 우리 집에 맞게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 집 피자 소스입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공간’에서 맛보는 속 편한 피자
가게는 아주 정갈하다. 티끌조차 없다. 정 관장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주방 역시 놀라울 정도로 위생적이다. 원래 이 인터뷰

는 연기될 상황이었다. 가게 리모델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수선하니 완성한 후 인터뷰하자는 것이었다. “아니다, 우리는 옛 모습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 리모델링 마치고 전에 하자.” 이렇게 해서 급히 날을 잡은 사연이 있다.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너무 낡았거든요. 옛날 개인 집을 고쳐서 40여년 가까이 썼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다. 노포는 그 모습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리모델링하는 걸로 결정했죠.” 피자가 나온다. 엄청나게 크다. 12인치(약 30.48cm)는 족히 된다. 그런데 색이 특이하다. “피자는 이미 우리나라 음식의 일부가 됐죠. 미국식이나 이탈리아 식이 아니라 우리 입에 맞아야 해요. 썩 피자를 개발해 크게 인기를 얻었어요. 지금도 이게 주력 메뉴입니다.” 한라산의 썩 향이 퍼진다. 특히 발효를 잘해서 먹어도 속이 편안하며, 무엇보다 짜지 않다. “우리 손님은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짤 피자는 안 좋아하세요. 대신 아삭한 피클을 같이 만들어서 드려요. 정성을 들이고 있지요.” 그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ROTC 장교로 전방에서 복무했다. 고시 공부도 했다. 입주 공부를 하던 절의 스님이 ‘청암’이란 법명을 내려주어 지금의 박물관 이름으로 사용했다. 참, 피자성효인방이라는 유일무이한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피자 ‘城’, ‘孝仁’입니다. 어질인(仁) 자는 아버님 함자에서 따온 거예요. 꽃처럼 아름다운 곳이 되었으면 해서 붙였어요.” 피자와 함께 ‘미니폴’이란 특별한 음식도 있다. 스파게티 그라탱 같은 음식인데, 갈갈한 맛도 좀 난다. 찹고추장을 넣은 작은 떡볶이에 스파게티를 넣고 치즈를 얹어 구워냈다. 한국적 변용이다. “미니폴은 어릴 때 하던 자치기에서 따온 거예요. 그게 미니폴(작은 막대)이란 뜻이잖아요. 그냥 스파게티 떡볶이라고 하기도 뭣해서 재미있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인기 메뉴입니다.” 우리 음식 역사에는 오래된 음식이 아주 많다. 짜장면은 140여년을 헤아리고, 프라이드치킨도 50년 된 음식이다. 그런 걸 파는 노포도 많다. 피자는 아직 노포가 거의 없다. 이제 우리도 피자 노포를 가질 시대가 된 것이다. 피자성효인방이 그 몫을 해낼 것이다.





반려견 외에도 세상에 반려동물은 많다! 나에게 맞는 반려동물 찾기

개, 고양이, 앵무새, 거북 등 많은 반려동물이 인간과 함께 살아간다. 그중 나에게 맞는 반려동물을 찾는 것은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다. 반려동물의 특징 등을 살펴본 뒤 나와 맞는 반려동물을 찾아보자.



반려동물 혼자 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도마뱀 Lizard

도마뱀은 현존하는 파충류 중 가장 종이 많으며, 종에 따라 사육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입양 시 종의 습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보자라면 레오파드 게코(표범도마뱀)가 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바퀴벌레·밀웜 등의 곤충을 먹는데, 예방접종이나 미용 등이 필요 없어 손이 많이 가지 않는 편이다. 다만 도마뱀과 놀 때 꼬리를 세게 잡으면 스스로 꼬리를 자르기도 하는데, 영양분이 꼬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기니피그 Guinea Pig

성질이 온순하고 주인 말을 잘 따르기 때문에 키우기 쉬운 애완동물 중 하나다. 혼자 있으면 불안감을 느끼므로 두 마리를 함께 키우는 것이 이상적이다. 단, 동성이 아니면 번식력이 엄청나므로 주의할 것. 사육장은 기니피그가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을수록 좋고, 운동할 수 있도록 케이지 안에 소형 '자바라 터널' 등을 설치해주는 것이 좋다. 채소는 괜찮지만 곡물은 피해야 하고, 육류나 유제품을 주면 사망할 수 있으니 전용 먹이를 줘야 한다.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면
앵무새 Parrot

앵무새는 비교적 지능이 높은 똑똑한 동물로, 사람과 교감하는 것을 좋아한다. 밝은 깃털과 행복한 지저귐 소리로 집 안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만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키우는 앵무새는 꼬리가 길고 몸집이 작은 사랑앵무다. 하지만 앵무새는 돌보기 쉬운 반면, 쾌적한 환경과 적절한 식사가 꼭 필요하다. 또한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자해를 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냄새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페럿 Ferret

족제빗과에 속하는 페럿은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며 보내는 조용한 야행성 반려동물이다. 수명은 약 7~10년이며, 암컷보다 수컷의 몸집이 더 크다. 개체마다 성격 차이가 많이 나므로 입양 시 자신과 맞는 성격인지 확인은 필수. 페럿은 족제빗과 동물 특유의 악취가 심하므로 입양 전 취선 제거 수술을 했는지 확인한다. 또 발정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특성상 중성화 수술도 필수. 밤이면 운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사육장에서 풀어주고 집안을 뛰어다니도록 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넓은 공간이 있다면
고슴도치 Hedgehog

야행성인 고슴도치는 밝은 곳에서는 활동을 잘 하지 않는다. 밤이면 활발하게 노는 편. 사육장은 가능한 한 크게 만들어주고 자신만의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게 좋다. 애완용 고슴도치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 후각이 발달해 냄새로 주인을 알아보는 만큼 평소 사료나 간식을 줄 때 손을 사용해 고슴도치가 주인의 냄새에 익숙해지게 한다. 고슴도치를 쓰다듬을 때는 가시가 난 방향대로, 머리부터 등 쪽으로 부드럽게 만져준다.



집을 자주 비우는 사람이라면
슈거 글라이더 Sugar Glider

포유류에 속하지만, 겉모습은 설치류의 하늘다람쥐와 비슷하고 활공도 가능하다. 야행성 동물인 슈거 글라이더는 분리 불안이 없어 집을 자주 비우는 직장인이 키우기 좋다. 낮가림이 심하고 겁도 많지만, 일단 애착이 형성되면 이름을 부르는 주인에게 달려올 정도로 애교가 많다. 활동적이라 사육장이나 케이지가 가능한 한 커야 한다. 추위에 약해 실내 온도를 25℃ 정도로 유지하고 햄스터나 다람쥐용 건조 사료를 먹이로 준다.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호 꿈꾸는 사진관의 주인공은 김포에 사는 손주들과 조부모님이다. 부모님이 맞벌이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에서 자란 손주들의 효도 사진이 정겹기만 하다.



이진영, 이지은, 이상민, 송순임, 이계하

저희 할머니 댁은 주말이면 늘 북적북적합니다. 저희 가족과 삼촌네, 할머니 댁이 가까이 있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항상 모이거든요. 부모님이 맞벌이라 저는 갓난아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컸어요. 사촌 동생들도 마찬가지로요. 저와 사촌 동생들은 열 살 이상 차이가 나지만,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자라서인지 친동생 못지않게 각별한 사이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생일 때 사촌 동생들이 태어났으니 할머니는 20년 가까운 시간을 손주들 돌보며 보내셨지요. 여행 다니시며 편하게 지내셔야 하는데, 손주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답니다. 그래서 전 어버이날이면 조부모님께도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얼마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걸리셔서 걱정이 많았어요. 다행히 별 탈 없이 나오셔서 한시름 놓았지요. 이번 기회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제대로 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건 많지만, 수시로 보실 수가 없으니 액자에 넣어 할머니 댁에 놓아드리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Q ▷ ...



사라 & 오픈스튜디오
김포 고촌역 1분 거리에 위치한, 자연광과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모던·앤티크 감성의 렌탈 스튜디오입니다.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대로 340 뉴시티 301호
문의 010-2374-7453

‘꿈꾸는 사진관’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친지는 물론 친구, 선후배, 스승, 이웃사촌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나의 경기도> 이메일로 이름, 연락처, 인원수, 신청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참여방법 magazine@gg.go.kr
참여 선물 액자나 앨범, 원본 사진 등

상속세·법률 고민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Q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한 채 남기셨는데, 이것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해결

무료로 세무 관련 상담해드려요!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거나 영세 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 2018년 1만2,085건, 2019년 9,985건, 2020년 1만4,648건, 2021년 1만4,668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올해는 총 183명의 마을세무사를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배치해 상담을 진행 중이다.

plus tip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불복 청구를 하고 싶지만, 세법도 모르고 비용 부담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 납세자라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영세 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 원 이하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 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해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 금지 대상자나 명단 공개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서비스 내용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을 비롯해 지방세 불복 청구와 관련한 상담 등을 무료로 진행한다. 단,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형편이 어려운 도민을 우선으로 하기에 일정 금액 이상 재산을 보유한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 부서에 문의해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찾아야 한다. 마을세무사가 선정되면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와 상시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대면 상담을 통해 추가로 상담받을 수도 있다.

신청 방법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선정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 부서에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자격 여부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세정과 031-8008-4154



Q

얼마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큰돈이라 소송이라도 해서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 신청하세요, 경기도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도민의 법률 권익 보호를 위해 도에서 직접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위촉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주민을 위해 중국어·영어·몽골어·베트남어·일본어 등 5개국 언어도 지원한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plus tip

상담 후 소송이 필요한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법률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송(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사건 신청, 소장 작성 대행 등 변호사 비용 수입료를 지원한다.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 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해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도민 등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송달료와 인지대 등 그 밖의 소송 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내용

민사·형사·가사 사건 관련 법률 상담,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상속증여세·취득세 등 세무 관련 상담, 기타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나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단, 모두 사전 예약은 필수다. 방문 상담은 경기도청 남부청사나 수원역사 내 365민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분야(조세, 법무, 노무)별 상담 요일이 다르므로 예약 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지 않으며, 상담 후 소장 등 서류 작성을 요청할 수는 없다.

신청 방법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예약한 후 상담이 가능하다.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법무담당관 031-8008-2234



정몽주와 조광조의 학문, 덕행, 절개 등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충렬서원

의리와 충절의 상징, 포은 정몽주 유적지

용인시 모현읍에는 '단심가'로 유명한 충절의 상징 포은 정몽주 선생 묘(경기도기념물 제1호)와 충렬서원(경기도유형문화재 제9호)이 자리해 있다. 용인시에서는 매년 '포은 문화제'를 열어 정몽주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고 있다.



정몽주 선생 묘 옆에 있는 문인석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조 중 하나인 포은 정몽주의 '단심가'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읊은 '하여가'의 답가인데, 이로 인해 죽음을 당했지만 한편으로는 충절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정몽주는 공민왕 9년(1360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친, 문무를 겸비한 재상으로 후진 양성을 위해 오부학당을 열고, 향교를 세워 유학을 진흥하며, 조선 시대 꽃핀 성리학의 기초를 만든 학자다.

이성계의 세력이 날로 커져 조준, 정도전 등이 새 왕조를 세우려 하자 끝까지 고려 왕실을 지키려다 공양왕 4년(1392년)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게 선죽교에서 피살되었다. 당시에는 역적으로 몰려 방치되다가 위험을 무릅쓴 우현보와 송악산의 스님들이 수습해 한동안 개경의 풍덕에 가매장했다가 이후 용인 능원리로 이장했다. 고향도 아니고 연고가 없는 용인에 이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하는 말에 의하면, 고향(경북 영일과 영천) 중 한 곳인 영천으로 이장할 때, 경기도 용인시 수지면 풍덕천리에 이르자 앞의 명정(銘旌, 다홍 바탕에 흰 글씨로 죽은 사람의 품계·관직·성씨를 기록한 깃발)이 바람에 날아가 지금의 묘소에 떨어져 이곳에 묘를 썼다고 한다.

조선 초기에는 간신으로 규정되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충절의 표상으로 추앙받은 정몽주는 태종 1년(1401년) 영의정으로 높임을 받았고, 중종 때에는 문묘(文廟)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특히 정몽주의 문하생인 권우에게 학문을 배운 세종대왕은 그를 성자로 만들어 <삼강행실도> '충신' 편에 정몽주를 수록했으며, 무덤을 성역화하기도 했다.

정몽주 선생 묘와 충렬서원에서 충절과 학덕을 기리다

정몽주 선생 묘는 단아하고 정갈하다. 단분(單墳)으로 묘비에는 고려 시대의 벼슬만 쓰고 조선의 시호를 기록하지 않아 두 왕조를 섬기지 않은 뜻을 분명히 했다. 묘역 입구의 신도비는 숙종 22년(1696년)에 건립했는데, 송시열이 짓고 명필 김수항이 썼다. 비에



송시열이 짓고 명필 김수항이 쓴 신도비



경기도기념물 제1호인 정몽주 선생 묘, 단아하고 정갈하다.

는 왕조와 시대를 뛰어넘은 정몽주의 충절과 높은 학식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묘 근처인 모현읍 능원리 118번지에는 정몽주를 추모하는 충렬서원이 있다. 선조 9년(1576년)에 지방 유림들이 뜻을 모아 정몽주와 조광조의 학문, 덕행 및 충성스러운 절개를 기리기 위해 지은 서원으로, 광해군 원년(1608년)에 임금이 이름을 짓고 현판을 하사해(사액) 나라의 공인과 경제적 지원을 받아 선현 배향과 지방민의 유학 교육을 담당했다. 서원은 마을 뒤쪽 야산 기슭에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공부하는 강당을 앞쪽에 배치하고 사당을 뒤쪽에 배치한 전학후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입구의 홍살문과 내삼문·외삼문·사당이 거의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강당이 축에서 벗어나 사당과 나란히 보이는 점이 특이하다.

충신의 아이콘인 정몽주. 요즘 시대 충신이란 어떤 사람일까? 왕의 권위가 절대적이던 예전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은 건 지도자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충신이라는 점일 것이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산 3



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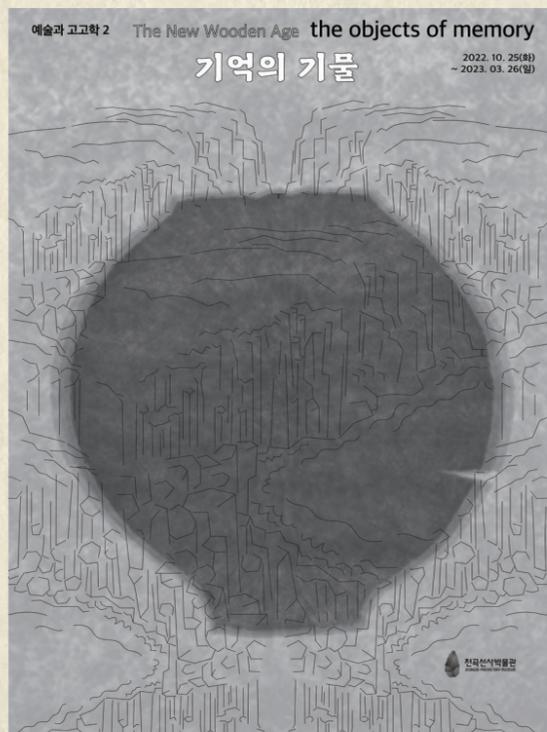
※ 경기문화재단·문화 기관 관람 안내

- ① 경기문화재단 멤버스 홈페이지(members.ggcf.kr)와 각 문화 기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세요.
- ② 경기아트센터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ggac.co.kr)에서 확인 후 방문하세요.
- ③ 방문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농치면 아쉬운 11월의 문화생활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문화 예술 행사가 11월을 물들인다.

제법 쌀쌀한 날씨가지만 따뜻하게 입고 신나게 즐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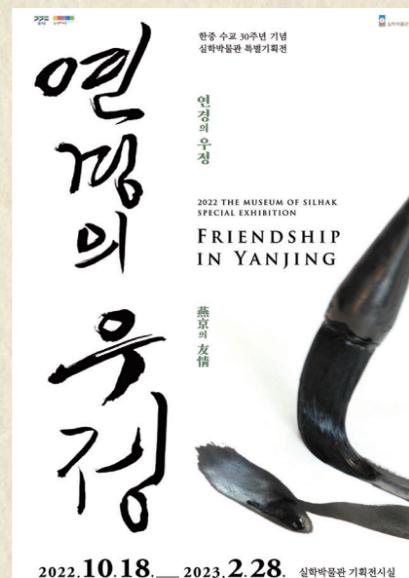


<기억의 기물>

'예술의 시선으로 바라본 고고학'이란 주제로 기획한 전곡선사박물관의 '예술과 고고학' 두 번째 전시는 <기억의 기물 The New Wooden Age_the objects of memory>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목공예에서 출발한 목기를 다룬다. 김규 작가의 목조각 작품은 선사시대의 공예처럼 생활 도구이자 예술 기능을 모두 지닌다. 목기는 때로는 달을 닮은 달항아리가 되고, 때로는 선사 유적에서 나온 토기가 되기도 한다.

info

- 2022년 10월 25일~2023년 3월 26일
- 전곡선사박물관
- 무료
- 031-830-5600 • jgpm.ggcf.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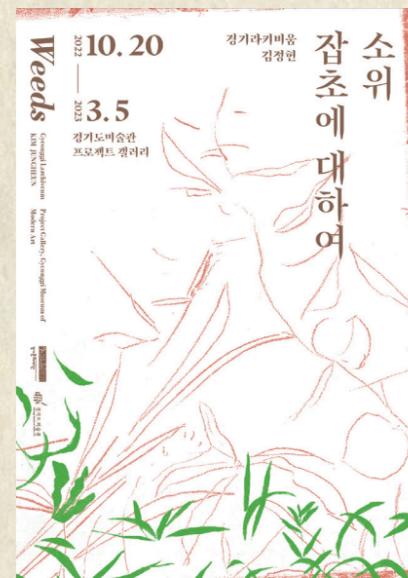


<연경의 우정>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실학박물관 특별 기획전 <연경의 우정>이 실학박물관에서 열린다. 과거 담헌 홍대용을 시작으로 초정 박제가, 추사 김정희에 이르기까지 연경 유리창(궁전과 사찰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기와를 굽는 곳)에서 만난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들은 필담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다. 전시에서는 양국의 지식인이 서로에게 전달한 글과 그림, 필담 기록 등을 통해 이들의 아름다운 우정을 확인할 수 있다.

info

- 2022년 10월 18일~2023년 2월 28일
- 실학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 무료
- 031-579-6000 • silhak.ggcf.kr



<소위 잡초에 대하여>

'경기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library), 기록보존소(archives), 미술관(museum)의 기능을 모두 합치면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기획한 전시 프로젝트다. 이번 전시에서는 젊은 미술가로서 '현실과 발언' 동인을 결성하고,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나라 민중미술의 기수로 꼽히는 김정현의 작품을 다룬다. 특히 1979년 현실과 발언을 결성하기 이전의 초기 작업과 자료를 발굴해 한데 모았다.

info

- 2022년 10월 20일~2023년 3월 5일
- 경기도미술관 1층 프로젝트 갤러리
- 무료
- 031-481-7000 • gmoma.ggcf.kr



<맥베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가장 강력한 비극으로 일컫는다. 스코틀랜드 최고의 전쟁 영웅 맥베스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세 마녀로부터 왕좌에 오를 것이라는 예언을 듣는다. 맥베스는 정의와 야망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왕좌를 차지하기로 결심하고, 권력에 대한 야망과 욕망으로 점점 타락해간다. 맥베스의 비극을 통해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 질문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info

- 2022년 11월 3일~13일
-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 R석 5만 원, S석 3만 원
- 031-230-3302~4(경기도극단)
- www.ggac.or.kr



<본(本)>

경기도무용단의 새롭고 젊은 감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기존 한국무용의 색채와 정서 및 호흡과 시대상을 담아낸 움직임을 선보인다. 1부 '제'에서는 한국적인 제 의식과 기도하는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표현했다. 2부 '흥'에서는 어려운 시절에도 흥을 잃지 않은 조상들 모습을 통해 현재의 고된 삶에서도 흥을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을 전한다.

info

- 2022년 11월 26일~27일
-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3만 원
- 031-230-3311~4 • www.ggac.or.kr



상임위원회 소개

경기도의회의 더 많은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도민의 모든 경제생활을 책임진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골목 상권부터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경제생활과 관련한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차별받지 않는 노동 존중 정책을 마련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사회 혁신 경제 생태계 및 주민 주도의 마을 자치 활성화 기반을 만드는 데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제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도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하는 위원회로 거듭나고 있다. 소관 부서로는 경기도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및 공동체지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4개의 실·국이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킨텍스,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10개의 소관 공공 기관을 관리·감독하며 경기도 경제정책의 전반을 살피고 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로 유해 물질 빨래 걱정 끝!

작업 과정에서 쇳가루, 기름 등 각종 유해 물질로 오염된 노동자 작업복은 잦은 세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세탁소에서는 이를 취급할 수 없고, 가정에서 세탁할 경우 다른 세탁물을 교차 오염시켜 가족의 건강까지 해칠 우려가 있어 그동안 작업복을 직접 세탁해야 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작업복 세탁은 큰 고역이었다. 이에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2023년 5월, 안산시 산업단지 내에 작업복 수거부터 세탁·배송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경기도 제1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개소할 예정이며, 향후 더 많은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자 노동'의 굴레를 벗은 가사 노동자 위한 지원 조례 제정

1953년 제정한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그동안 가사 노동자는 근로시간, 유급 휴일·휴가, 4대 보험,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후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사 노동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최근까지도 전무한 상태였다. 올 6월에 이르러 서야 비로소 가사 노동 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 가사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가사 노동 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률 관계 등을 규정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가사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내 가사 노동 서비스 활성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북부 균형 발전 모색

현재 경기도에는 미래 신산업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평택포승지구, 평택현덕지구, 시흥배곧지구 등 세 곳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만 이들 경제자유구역은 남부에 치우쳐 있어 북부 지역은 민간투자, 외국인 투자 유치, 혁신 생태계 조성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여마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수시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이에 김완규 위원장을 좌장으로 해 경기 북부 균형 발

전 차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혁신 생태계 구축, 토지 공급 활성화, 세계·금융 통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여성 기업의 도약을 위한 '경기도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여성 기업을 보유한 경기도는 도내 전체 사업체 중 여성 기업의 비율이 37%에 달하며, 그 수는 30여만 개에 이른다. 여성 기업의 증가는 전체 경제활동 규모를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여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해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 4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여성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사업 수행 근거 및 여성 기업 주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바, 경제노동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경기도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해 여성 기업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도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의회 소식

경기도의회의 더 많은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도유림 관리 실태 등 현장 점검 실시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도유림 관리 실태 등 현장 점검을 위해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포천 아쿠아스마트팜, 국립수목원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잣향기푸른숲을 방문해 홍두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부터 숲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힐링센터·치유숲길·목공방·유아 숲체험장 등 산림 체험 시설 및 프로그램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일대 축령산과 서리산 자락에 있는 산림 휴양 공간으로, 수령 80년 이상 된 잣나무들이 국내 최대로 분포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남부와 북부로 나뉜 도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능을 남부와 북부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휴식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휴양 공간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KLID와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에 적용할 만한 수준의 '표준 의정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KLID는 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구현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상호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도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 지원 ▲도의회 기반의 전국 지방의회 표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원 ▲지방의회 디지털화 관련 법·제도 마련 협력 ▲지방의회 디지털화 관련 설명회, 세미나, 워크숍 등 추진 협력 등이다. 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의회는 물론, 226개 기초의회에서도 입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방 의정 표준 모델이 수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전자 회의 시스템, 의정 포털 시스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인터넷 생방송 등을 운영하는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의정 지원 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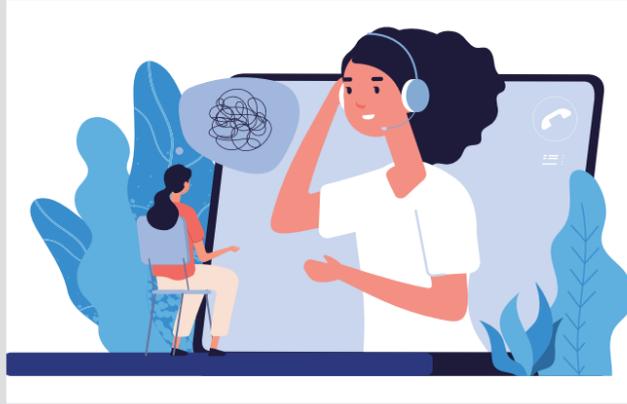
개그맨·가수·성악가·아나운서 등 홍보대사 확대 위촉

도의회가 홍보대사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10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위촉식을 갖고 개그맨 김성규·박성광·정은숙, 가수 신대철·동후, 성악가 정찬희, 아나운서 김수경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을 새로 위촉했다. 신규 홍보대사는 의정 활동 홍보물 제작, 도의회 주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 위촉 기간은 2024년 6월까지다. 새롭게 임명된 홍보대사는 도의회가 자체 구성한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 도의회는 이번 신규 홍보대사들을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 홍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도민 소통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위촉식에서 염종현 의장은 "많은 국민께 사랑받고 계시는 여러 예술가,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의회를 알릴 수 있어 든든하다"며, "1,390만 명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며 도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도의회의 활동 모습을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도의회가 개원 66주년을 맞아 의회의 역할과 성과, 나아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회사(議會史) 편찬에 본격 착수한다. 염종현 의장은 10월 18일 의장 접견실에서 '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김동희·이자형·정하용·최병선 의원과 이계삼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 등 총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제정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에 따라 운영하며, 주로 ▲의회사 편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 ▲의회사 사료 조사, 수집, 연구 및 편찬 ▲의회사 의정 각 분야 자료 수집, 정리 및 보존 ▲그 외 의회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의회는 이날 위원 위촉에 따라 11월 중 의회사 편찬 기본 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의회사 편찬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 방향, 규모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의회사 편찬위원의 위촉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다.



경기도 온라인 감정노동 권리 보장 교육 프로그램 개설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온라인 감정노동 권리 보장 교육'을 개설해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근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경기도 감정노동자 등 심리 치유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코로나19 상황과 감정노동자들이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권리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개설하게 됐다.

교육은 ▲감정노동 인식 개선 등 권리 보장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인권과 성 인지 교육 ▲감정노동 개념과 사례 등 사용·관리자 교육 ▲스트레스 조절 등의 심리 역량 교육 총 4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하며, 개인용 컴퓨터(PC)와 태블릿 컴퓨터 또는 모바일 등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

노동권익과 031-8030-4627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체험 교육 정원 60% 늘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체험객들의 안전 체험 기회 확대와 편의 증대를 위해 10월부터 체험 코스별 운영 횟수, 체험 정원을 확대 운영한다. 우선 5~9세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예약이 어려웠던 '어린이 안전 동화마을'의 운영 횟수와 체험 정원을 늘려 보다 쉽게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역시 평일 11회 17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16회 320명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주중에만 실시하던 교육을 주말까지 확대 운영해 직장인들이 주말을 이용해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재난 현장에서 만나는 생명 존중, 협동, 봉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4D 영화 두 편(〈유성이 쏟아지는 날〉, 〈싱크홀〉) 각 15분 상영)을 매시간 상영하고, 가상현실(VR)을 통해 토양·대기·수질 문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상식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031-288-1031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 청소년이라면 전화 상담하세요

부당 노동 행위로 피해를 입은 등 근로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 청소년들은 앞으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48-1318)나 청소년근로보호센터(1599-0924)로 전화 문의 또는 상담할 수 있다. 경기도가 근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근로 청소년들을 부당 노동 행위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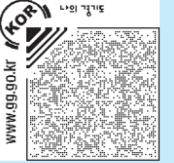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 근로 청소년과 이들을 고용하는 근로 사업장 등이다. 청소년의 근로 부당 처우 상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문 기관 연계 등도 지원한다.

청소년과 031-8008-4713

내가 말하는, 내가 그리는 나의 경기도 도민 참여 공모전 개최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도민이 느낀 경기도를 직접 글로 쓰고 그려보는 도민 참여 공모전 '너와 나의 경기도'를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경기도민으로 산다는 것, 나의 경기도'다. 내가 생각하는 경기도와 경기도에 바라는 점,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각을 500자 이상의 글과 손 그림·콜라주·컴퓨터그래픽스 등의 그림(A2 사이즈/10M 이하)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공모 부문은 청소년부와 일반부 2개 부문이며, 총 12개 작품을 선정한다. 청소년부 글과 그림 부문 6개 작품에는 도지사 상장을, 일반부 글과 그림 부문 6개 작품에는 각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오는 12월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경기도 브랜드 포럼'에 전시된다. 또한 경기도는 우수 수상작 2점을 대상으로 한 도민 대표 발표를 통해 도민이 주인공이 되어 경기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열린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도민 참여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ggdband.com)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031-8008-3322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기회를 잡아봐
잡아바! www.JOBaba.net

경기도 취업 & 창업 정보를 한눈에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와 함께합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3차) 모집

주요 내용	1년 / 120만 원 복지 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급)
신청 기간	2022년 11월 1일~15일
신청 대상	총 1만1,200명 • 만 18세~34세 청년 근로자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youth.jobaba.net)
문의	1577-0014(평일 09:00-18:00)

경기도 중소기업·중견기업 네트워킹 사업 '오프라인 조찬 세미나'

주요 내용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인력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확산을 위해 경기도 내 우수 중소기업과 재단 간 상호 협력 강화 및 지속적 교류 기회 마련 • 금융, 수출 등 기업 경영 관련 특강, 좋은 일자리 확산 관련 기업 간 소통 프로그램 진행 등
개최 일자	2022년 11월 중 예정(가입자 대상 확정 날짜 별도 공지 예정)
개최 장소	서울 소재 컨퍼런스 룸(가입자 대상 확정 장소 별도 공지 예정)
신청 기간	~2022년 11월 21일
신청 대상	경기도 내 중소기업 CEO(또는 COO 등 총괄책임자) 50명 내외
신청 방법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일자리재단 중소기업 네트워킹' 가입 후 신청(선착순 모집)
문의	031-270-9656

여성 고용 안정 지원사업 그룹 코칭 10회 차

주요 내용	
교육 내용	워킹맘의 행복한 자녀 교육
교육 일시	2022년 11월 15일 10:00~12:00
교육 방법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코칭
신청 기간	2022년 10월 26일~11월 14일
신청 대상	경기도민 15명 내외(참여자 전원 모바일 커피 쿠폰 제공)
신청 방법	경기도 워라벨 링크(13b.gg.go.kr) 회원 가입 후 신청
문의	031-270-9798



복지는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 031-120

긴급복지 핫라인

☎ 010-4419-7722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알게 된 경우 알려주세요.

어려운 이웃이란?

- 소득 감소, 실직, 휴업, 폐업 등 생계 곤란 가구
- 빚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 가구
- 고시원, 쪽방촌 등 주거 취약 가구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가구
- 중대한 질병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
-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포털(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나의 경기도>를 읽고

착한 지구인 생활

제가 사는 화성시에서는 반석산근린공원, 오산천, 여울공원, 습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태닉 가든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착한 지구인 생활' 칼럼에 실린 세계 여러 도시의 가드닝 소개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놀이 에너지가 공기를 정화하는 폴란드의 바이오테크 놀이터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박민주

복지누리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복지누리' 칼럼에 소개한 다양한 경기도 산후 지원 육아 정책 기사가 가장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복지누리' 기사를 잘 메모해두고 내게 꼭 맞는 산후조리 지원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겠어요.

이준임

경기 문화유산답사기

사학과 출신이라 '경기 문화유산답사기'는 다달이 빼놓지 않고 읽은 뒤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식을 읽다 보면 그동안 모르고 지내던 명소를 많이 알게 되는데, 이번 호에서는 양평 수증사라는 곳을 소개했더군요. 가을이면 500년 수령의 노란 은행나무 사이로 두물머리의 푸른 물결이 그림처럼 펼쳐진다니 꼭 한 번 다녀와야겠습니다.

정효근

기타 당첨자 신선경 010-XXXX-1706, 오은경 010-XXXX-6964

내가 그리는 경기도 당첨자



심지민



이동민



정민화

기타 당첨자
한미경 010-XXXX-3301
박연주 010-XXXX-3090

<나의 경기도>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이벤트 1 독자 소감 보내기

참여 방법 <나의 경기도>를 읽은 소감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magazine@gg.go.kr)로 보낸다.
참여 기간 11월 20일까지
당첨 선물 커피 기프티콘 1만 원 상당

이벤트 2 내가 그리는 경기도

참여 방법 1 67페이지의 그림을 예쁘게 색칠해 경기도 풍경을 완성한다.
2 다음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해 완성한 그림을 보낸다.
- 개인 SNS에 완성한 그림을 올린 뒤 #나의 경기도 해시태그하기
- 색칠한 그림을 찍어 이메일(magazine@gg.go.kr, 선물받을 전화번호 기재)로 보내기
참여 기간 11월 20일까지
당첨 선물 상품권 1만 원 상당

이벤트 3 경기도 초성 퀴즈

지 O 흥 표

힌트 지난 2019년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경기 O O O O O는 골목 상권을 살리고 소비자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준다는 평가를 받으며 사용액이 점차 늘고 있다.
※ '경기포커스 1'을 참고하세요.

참여 방법 오른쪽 QR코드를 검색하면 응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참여 기간 11월 20일까지
당첨 선물 상품권 1만 원 상당



경기도 초성 퀴즈 당첨자

조한 010-XXXX-2665
장우익 010-XXXX-3944
박철수 010-XXXX-7655
유순희 010-XXXX-0279
김채원 010-XXXX-9703

정기구독 신청 안내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나의 경기도>는 무료로 배부되는 월간 소식지입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다음 호부터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신청
myggd.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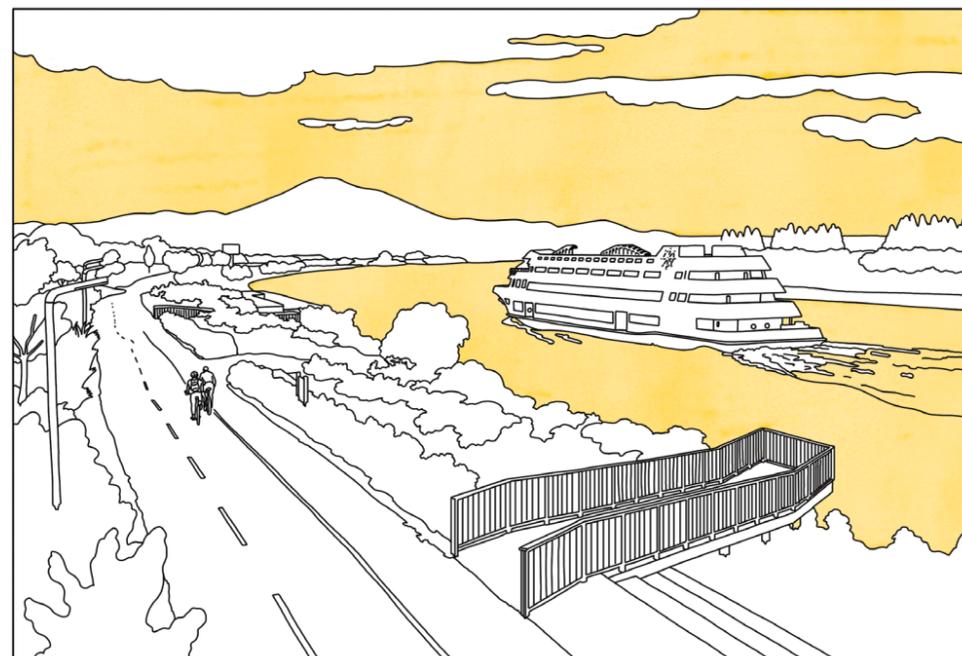
구독 취소,
주소지 변경
myggd.kr



문의 031-8008-2827
magazine@gg.go.kr

내가 그리는 경기도

보너스 게임!
다른 그림 5개를
찾아보세요.



물길 따라 펼쳐진 다채로운 풍경, 경인아라뱃길

아라뱃길의 '아라'는 우리 민요 '아리랑'의 후렴구 '아라리오'에서 따온 말로 서해와 한강을 잇는 우리 민족의 멋과 열, 문화가 흐르는 뱃길이다. 가을에 걸거나 자전거 타기 좋은 코스다.